

정례브리핑

2021.6.18.(금) 10:30, 차덕철 부대변인(통일부)

안녕하세요?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당 중앙위 전원회의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6월 15일 개최된 당 중앙위 전원회의 1일차에서 6개의 의정을 회의에 상정하고, 3개 의정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일차에서는 1일차 때 토의된 3개 의정들에 대해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를 진행하였다고 보도를 하였고, 어제 6월 17일 3일차에는 '국제정세 분석과 대응방향', '인민생활의 안정과 향상', '육아정책 개선' 3개 의정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고, 관련하여 결정서를 채택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당 중앙위 3차 전원회의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향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지속 주시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한반도의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가장 좋은 길은 대화와 협력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통일부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주 화요일인 6월 15일부터 6월 27일까지 12박 13일간 'DMZ 평화의 길 통일걷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올해 10번의 통일걷기 행사 중에 첫 번째 행사로서 통일부 장관은 오늘 오후 이번 통일걷기에 참여하여 70여 명의 일반 참가자들과 함께 인제-양구-화천 구간을 걸을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이번 통일걷기 행사가 DMZ 접경지역에서 평화를 직접 체험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관은 오늘 오후 5시에 주독일 한국대사관과 독일 베를린 자유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베를린 구상 4주년 계기 온라인 토론회에서 축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7년 7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발표 4주년을 맞아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미하엘 슈타 함부르크대 교수 등 전문가들의 토론을 진행하며, 주독일 대한민국대사 및 독일 자유대 총장, 독일 외교부 차관 등의 개회사와 축사도 함께 있을 계획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주독일교민, 현지 독일인 등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차관은 특별한 외부일정 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보실 계획입니다.

이것으로서 모두설명을 다 드리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비전향 장기수 2차 북송 관련해서 통일부 차원의 계획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비전향 장기수 관련 정부의 기본 입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00년 9월 북송을 희망하는 비전향 장기수 63명 전원을 판문점을 통해서 송환함으로써 장기수 문제는 기본적으로 종결된 사항이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질문> 전원회의 내용... 북한이 발표한 것을 보면, '대화과 대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한반도 정세 안정적 관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답변> 일단 먼저 전원회의가 현재 진행 중인 만큼 그 상황을 지속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가장 좋은 길은 대화와 협력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종합적으로 평가 분석을 할 것이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이인영 장관님 방미 일정은 나온 게 있나요?

<답변> 장관님 방미 일정과 관련해서 원래 6월 말 방미를 위해 실무적인 준비를 진행해 오다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아직은 정립되지 않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있고, 그리고 이 불확실성 등과 관련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리고 또 면담 대상인 미국의 주요 당직자들이 방한이나 해외 일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질적인 협의가 가능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하시는 것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